석유화학설비 수입 12.3% 증가

96년 하반기 수입증가율 큰폭 둔화 … 정유는 42.9% 감소

상반기 중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시설재 수입증가율이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통상산업부가 시설투자 규모가 1조원 이상인 10개 주요 업종의 상위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설재 수입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시설재 수입은 52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2%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56억5000만달러로 14.3% 증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시설재 수입계획(1996.하반기)

(단위 : 100만달러, %)

구 분	1995	1996	증감률
전 력	685	913	33.3
정 유	431	246	▽42.9
일반기계	652	510	▽21.8
자동차	998	1,064	6.6
조 선	113	80	▽29.2
철 강	695	2,449	252.4
석유화학	211	237	12.3
화학섬유	309	354	14.6
반도체	4,622	4,610	▽0.3
가 전	593	438	▽26.1
합 계	9,310	10,900	17.1

3/4분기에는 전력·철강 등의 시설투자 집중으로 시설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95년 시설재 수입이 최대였던 10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한편 11, 12월에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시설재 수입계획을 보면, 반도체가 46억1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철강(24억4900만달러), 자동차(10억6400만달러), 전력(9억1300만달러), 일반기계(5억1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증감률을 보면, 철강이 252%, 전력이 33.4% 증가하는 것을 비롯, 화학섬유(14.6%), 석유화학(12.3%), 자동차(6.6%) 등도 시설재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정유는 대부분의 설비증설이 완료돼 전년대비 42.9% 감소하고 조선 역시 설비투자 감소로 29.2% 감소하는 것을 비롯 가전(-26.1%), 일반기계(-21.8%), 반도체(-0.3%) 등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1996/9/9.16>